

【서평】 브뤼노 라투르 (홍철기 역),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라투르, 세르 그리고 근대성의 네트워크

심재원

과학인류학자 브뤼노 라투르의 저서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다. “근대성’이라는 말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실천을 지시하고 있고… 실천의 첫 번째 집합은 ‘번역’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존재들 간의 혼합, 즉 자연과 문화의 하이브리드들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는 ‘정화’로서, 전적으로 구분되는 존재론적 지대를 창출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인간 존재들의 존재론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인간 존재들의 존재론적 지대이다. 첫 번째 집합이 없다면 정화의 실천은 헛되고 무의미해질 것이다. 두 번째 실천이 없으면 번역의 작업은 느려지고 제한되거나 심지어 불가능해질 것이다.” (41-2쪽, 서평자 강조) 저서 전체에서 더 이상 명확히 개념화되지 않는 ‘번역’은 그의 철학적 멘터 미셸 세르는 *Hermès III: La traduction*에서 ‘텍스트 공간에서의 사물들을 포함하는 집합들의 변형(transformation)’(9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라투르의 근대성 구도에서 ‘정화’를 선결적으로 전제하는 것으로 라투르는 그 역사적 기원을 *Shapin & Schaffer*의 과학-정치의 계보학 역작 *Leviathan and the air-pump*에서 가져와 다음과 같은 사회와 자연의 이원적 근대성의 해석을 전개한다. “훙스는 리바이어던…을 정의한다… 리바이어던은 단지 사회적 관계로만 구성된다… 그러나 보일은 한층 더 낮은 인공물에 대해 정의한다.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계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현상을 그 내부에서 창조해내는 실험실을 발명했다… 보일과 그 계승자들과 함께 우리는

자연의 힘, 즉 목소리는 없지만 의미를 부여받거나 위탁받은 대상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다. 홉스와 보일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공통된 논쟁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을 제공한다. **한편으로 사회적 힘과 권력,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힘과 메커니즘이 그것이다.**”(2장7절, 서평자 강조)

I. 이중권력적 근대성

그러나 이러한 이중권력적 근대성은 가상일 뿐이다. “이제부터 주체들이 사물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말자. 그 반대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물리학과 신학, 심리학과 법학, 성서 주석학, 그리고 정치학 모두를 한꺼번에 다시 쓴다. 그의 글과 서간문에서 보일은 과학적 수사와 신학, 과학 정치, 그리고 사실들의 해석학의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오랜 인류학적 지형 내부에 놓이게 되는데 그들은 사물과 사람들의 능력을 나누지만, 아직 순수한 사회적 힘과 순수한 자연의 메커니즘 사이의 어떠한 분할도 수립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근대성 전체의 역설이 놓여있다.” (88쪽)

라투르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대상은 바로 이 두 가지 과제 사이의 관계이다.” (상동) 즉, “자연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자연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오직 그 비밀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사실… 즉 인간이,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사회를 건설하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90쪽)라는 근대성의 이원론적 구도가 문제인 것이다. 이 구도에 대한 그의 진전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만일 우리가 근대 정치 철학의 방식에 따라 이 두 가지의 보장을 각자 별도로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자연이 인간에 의해서, 혹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자연은 낯설고 영원히 우리와

동떨어져 적대적인 채로 남아있게 된다. 자연의 초월성은 우리를 압도하거나 자연을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이에 대칭적으로 만일 사회가 오직 인간에 의해, 그리고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우리 자신을 동시에 형식이자 질료로 삼는 인공피조물인 리바이어던은 존속할 수 없다. 리바이어던의 내재성 자체가 자신을 단번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로 몰아감으로써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성의] 헌법이 제공하는 이 두 가지 보장은 결코 마치 전자가 자연의 비-인간성을 보증하고 후자가 사회적 영역의 인간성을 보장한다는 듯이 별도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그 둘은 함께 창조되었다. 양자는 서로를 강화한다. 전자와 후자는 서로에게 평형을 잡아주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단일한 새로운 통치기구의 두 부문일 뿐이다.” (90-91쪽)

II. 근대의 비근대성

이 대목에서 라투르의 회고주의적 근대성론의 이론적 단초가 주어지는데, 그가 바라보는 근대성의 현실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 보장은 모순적이며, 단지 상호간에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모순적인데, … 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 번째의 헌법적 보장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세계(자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해 구축되는)와 사회의 세계(사회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물들에 의해 지탱되는) 사이의 완전한 분리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이브리드의 작용과 정화작용 사이에는 완벽한 분리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92-3쪽, 서평자 강조) 따라서 라투르에 의거한 근대성의 “전반적인 구조는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근대인들은 자연에 극단적인 초월성을 부여하면서도 자신들이 사회를 조직해내는 모든 지점에 자연이 개입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근대인들은 자신들의 사회가 자연을 동원함으로써만 통합되도록 하면서도 스스로

의 정치적 운명에서 유일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 자연의 초월성은 자연이 사회에 내재적이 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것의 내재성은 리바이어던으로 하여금 초월성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다른 것에 의해 제한되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잘 정돈된 구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 헌법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근대의] ‘생산적 힘들을 해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결코 놀랍지 않다.” (94쪽) 다시 말하여, “이 근대성의 헌법의 핵심은 그것이 결합하는 매개 작용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들을 비가시적이고 사유할 수 없고 표상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번역 수정] …근대 세계는 그러한 혼합작용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고 여기에서 근대성의 메커니즘의 묘미가 드러나는데) **근대적 헌법은 스스로 그 존재와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하이브리드들의 확장된 증식을 허용한다.**” (99쪽, 서평자 강조) 따라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저서의 제목에 표출된 역설적이면서 충격적인 라투르의 ‘탈근대적postmodern이 아니라 비근대적 amodern인’ 근대성의 회고적 테제의 진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근대 세계라는 것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데, 이는 근대성의 헌법의 공식적인 조항의 내용만을 따라서 가능한 적은 결코 없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111쪽, 서평자 강조)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헌법에 명시된 의미에서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 **누구도 근대인이었던 적도 없다.**… 이와 같은 **회고적인retrospective 태도**는 밝혀내기보다는 배치하며, 제하기보다는 부가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친밀해지고 폭로하기보다는 분류하는데, 이를 나는 근대적이지 않은 것nonmodern으로 (혹은 **비근대적 amodern인 것으로**) 규정한다. 근대인의 헌법과 함께 그 헌법이 증식 시키기를 거부하면서도 허용하는 모든 하이브리드를 동시에 고려할 때에 누구나 비근대인인 것이다.

헌법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중간에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둠으

로써만 그렇게 한다. 헌법은 **연결망network에 대해** ‘그것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잔여물’이라고 말한다. 이제 하이브리드들, 괴물들… 헌법이 설명하기를 포기한 존재들—이 곧 모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집합체collectives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전근대인**이라고 불리는 타자들의 집합체들도 포괄한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설명은 아직 시작된 적도 없고 이것이 진상임을 발견하게 된다. 즉 우리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고 비판적이었던 적도 없다는 것, 지나간 과거라는 것, 혹은 ‘구체제’라는 것도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 오래된 인류학적 원형을 정말로 떨쳐버린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반대로 될 수도 없었다는 것.” (127-9쪽, 서평자 강조; 단절과 혁명을 지양하고 지속과 연결을 강조하는 라투르의 독특한 역사철학은 세르와의 네 번째 인터뷰로, *Serres, Eclaircissements*에서 전개된다.)

Ⅲ. 근대성의 네트워크

근대성에 대한 고전적 체계를 수립한 칸트를 빗대어 말해본다면, “여기 왼쪽에는 물자체가 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는 발언과 사고의 주체들의, 가치와 기호들의 자유로운 사회가 있다. 모든 것은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모든 것은 둘 사이를 지나가며 매개와 번역, 그리고 **연결망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 사이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이는 어떤 장소도 점유하고 있지 않다… 집합체들을 자연의 초월성과 모든 인간의 자유라는 두 가지와 연합을 맺게 하면서도 동시에 자연을 자유에 대한 절대적 한계설정과 결합시킴으로써, 그 집합체들을 확장하는 보다 나은 방식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든다—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게 만든다.” (106-7쪽, 서평자 강조) 이러한 네트워크 근대성의 하이브리드 양가성이 ‘脫’을 부정하는 라투르의 反포스트모더니즘적 태도

(이에 대한 원초적 논의도 Serres, *Eclaircissements*에 나오는 라투르와 세르의 네 번째 인터뷰를 참조)를 매개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서평자에게는 지극히 ‘탈근대적’으로 비치는 ‘근대성의 네트워킹’ 가능성을 여는데, 라투르는 자신의 회고주의적 탈근대성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번역과 정화라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실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근대인이다—즉 우리는 비판적 기획이 저 아래에서 하이브리드의 증식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을지라도 이 기획에 **기꺼이 동의한다**. 우리가 정화작용과 혼성화 작용에 주목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 우리가 현재에 근대인임을 멈추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변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우리가 근대인이어 왔다는 사실도 중단되는데, 우리가 **회고적으로** 실천의 두 가지 집합이, 이제는 끝나가는 역사적 시기 안에서 이미 언제나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거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결국 만일 우리가 근대인—최소한 근대적 비판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이었던 적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른 자연—문화들에 대해 유지해온 고통스러운 관계가 또한 변형되게 될 것이다.” (42-4쪽, 서평자 강조)

하이브리드의 존재적 지위와 연결된 준대상에 대한 3장 2절의 논의(이 부분이 영역 수정본에서 증보되었다)를 제외하곤, 저서의 1, 2장에 그 철학적 핵심이 온전히 들어가 있는 라투르의 ‘근대의 비근대성’ 테제는, 사물과 실험실 등으로 이루어지는 비-인간적 자연 세계(자연주의에 역설적인, 라투르의 인식론적 구성주의에 대해서는 그의 출세작 *Laboratory Life*와 *Pandora's Hope* 참조)와 문화와 주체 등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사회 세계, 양자의 비근대적 연결망짓기 a modern networking을 통해 제2의 근대 혁명을 의도하는만큼(113쪽), 저서 전체에 걸쳐서 세르의 헤르메스 철학과 선험적으로 얽여 있는 그의 테제가, 때 늦은 감이 있는 한글 번역본 출간을 계기로, 네트워킹 이론에 대한 철학적 관심의 재고와 함께 우리들에게 근대, 전근대, 탈근대, 비근대 그리고 심지어는 반근대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재원
서울대학교